23년 4분기

# 중국 수출증가 품목

| 품명 | 그 밖의 구리합금<br>[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
|---|---|
| HS code | 7403.29 |

**상대국 수입관세율 (%)**

| MFN('24) | FTA | RCEP |
|---|---|---|
| 1 | 0 | 0 |

**선정 사유**

▶ 해당 품목에 대한 對중 수출증감률은 18년부터 23년까지(20년 제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9년도와 유사하게 2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354.5%로 대폭 상승함

**한국의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HS code 7403.29)**

(단위 : 천불, %)

| 연도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
| 2018 | 1,955 | 7,338.00 |
| 2019 | 40,000 | 1,945.50 |
| 2020 | 1,654 | -95.9 |
| 2021 | 4,952 | 199.4 |
| 2022 | 8,836 | 73.4 |
| 2022.12 | 8,836 | 78.4 |
| 2023.12 | 40,162 | 354.5 |

▶ 중국은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이며, 중국의 해당 품목에 대한 對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동 품목을 선정함

**우리나라 對중 수출동향 (HS 7403)**

▶ 구리합금의 對중 수출금액은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HS 7403.29-1010, 1020, 9000)"과 "구리-아연의 합금(황동)(HS 7403.21-0000)"은 증가하고 있지만 "구리-주석의 합금(청동)(HS 7403.22-0000)"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한국의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HS code 7403 세부품목)**

(단위 : 천불, %)

| 순번 | HSK | 품목명 | 수출금액 | | |
|---|---|---|---|---|---|
| | | | 2021 | 2022 | 2023 |
| | | 총계 | 135,838 | 118,027 | 154,016 |
| 1 | 7403210000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 114,555 | 92,558 | 105,039 |
| 2 | 7403220000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 16,331 | 16,634 | 8,815 |
| 3 | 7403291010 |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 0 | 0 | 0 |
| 4 | 7403291020 |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 166 | 170 | 180 |
| 5 | 7403299000 | 기타 | 4,786 | 8,665 | 39,982 |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 HS 7403.29(그 밖의 구리합금) 對중 수출 금액 및 FTA 활용률은 전년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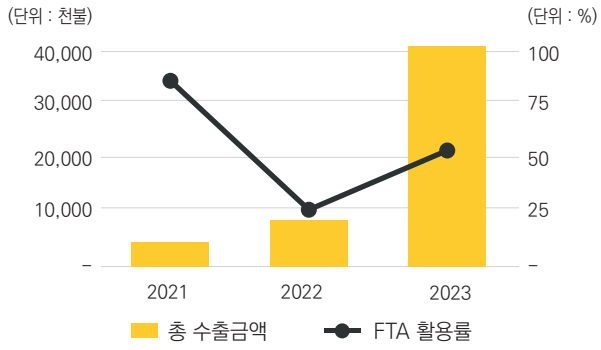
- FTA 활용률 21년 84.9%, 22년 26.8%, 23년 53.5%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C or RVC 40%임

▶ 23년 기준, HS 7403.29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중소기업 100%임

- FTA 활용률은 중소기업 53.5% 임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HS 7403.29의 對중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 (2021~2023)




HS 7403.29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3 기준)

〈 FTA 활용률 〉
중소기업 : 53.5%

**중국 수입 동향**

▶ 23년 기준 중국의 선정품목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59.8%)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태국(18.3%), 베트남(4.1%), 파키스탄(3.3%), 한국(3.2%)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5위 수입국임

**특이 사항**

▶ 구리합금 제품은 전기, 전자, 기계, 건설, 해양, 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됨

- 특히, 전기차 제작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도 이용되어 미래형 소재로 각광 받으면서 구리합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중국은 23년부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철금속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임

-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 비철금속 업종을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육성하고자 하며, 앞으로의 비철금속 업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 선정품목의 한-중 FTA, RCEP 특혜관세율 0%, MFN은 1%로 한-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 있는 품목임

▶ 선정품목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의 비철금속 부분의 탄소저감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비철금속 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량 통제로 인한 수출 및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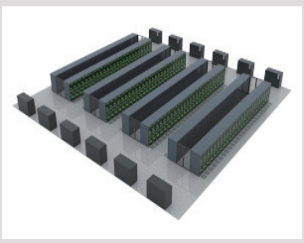
23년 4분기

# 미국 수출증가 품목

| 품명 | 공기조절기(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
|---|---|
| HS code | 8415.83 |

**상대국 수입관세율 (%)**

| MFN('24) | FTA |
|---|---|
| 1.4 | 0 |



자료: Yura Corporation

**선정 사유**

▶ 해당 품목의 對미 수출증감률은 20년부터 23년까지(22년 제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334,828.2%로 대폭 상승함

**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HS code 8415.83)**

(단위 : 천불, %)

| 연도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
| 2018 | 4,171 | 1,806.40 |
| 2019 | 573 | -86.3 |
| 2020 | 4,986 | 769.7 |
| 2021 | 6,381 | 28.0 |
| 2022 | 12 | -99.8 |
| 2022.12 | 12 | -99.8 |
| 2023.12 | 41,823 | 334,828.20 |

▶ 미국의 친환경 냉난방공조 설비 수요 증가로 인해 해당 품목의 對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동 품목을 선정함

- 공기조절기란 냉난방뿐만 아니라 환기, 제습, 청정까지 포함해 공기 질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산업 설비 현장에서 중요한 설비의 한 부분임

**우리나라 對미 수출동향 (HS 8415)**

▶ 공기조절기(HS 8415)의 對미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12월 기준 전년대비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그 밖의 공기조절기(HSK 8415.83-0000)"의 수출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공기조절기(HSK8415.82-0000)"의 수출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HS code 8415 세부품목)**

(단위 : 천불, %)

| 구분 | HSK | 품목명 | 수출금액 | | |
|---|---|---|---|---|---|
| | | | 2021 | 2022 | 2023 |
| | | 총계 | 22,132 | 30,756 | 87,847 |
| 1 | 8415810000 |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 104 | 436 | 462 |
| 2 | 8415820000 |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15,647 | 30,308 | 45,562 |
| 3 | 8415830000 |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 6,381 | 12 | 41,823 |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 HS 8415.83(공기조절기) 對미 수출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였지만 FTA 활용률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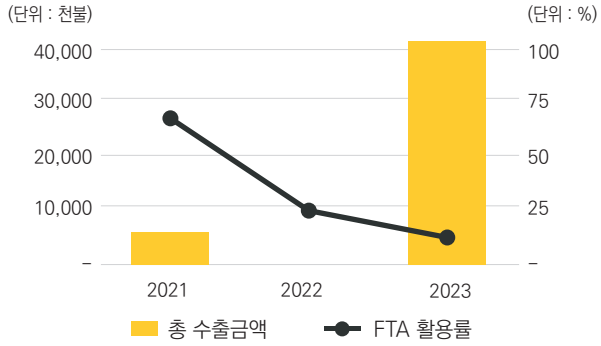
- FTA 활용률 21년 67.1%, 22년 25.5%, 23년 13.4%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TSH임

▶ 23년 기준, HS 8415.83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중견기업 87.3% 중소기업 12.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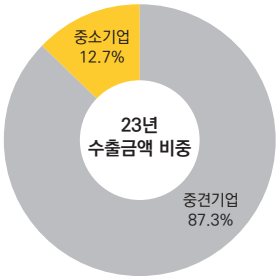
- FTA 활용률은 중견기업 2%, 중소기업 91.4% 임

##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HS 8415.83 對미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 (2021~2023)**




**HS 8415.83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3)**




〈 FTA 활용률 〉
중견기업 : 2.0%, 중소기업 : 91.4%

## 미국 수입 동향

▶ 23년 기준 미국의 HS 8415.83의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요르단, 중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캐나다(41.9%), 멕시코(26.1%)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6%), 요르단(5%), 중국(2.8%)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3위 수입국임

## 특이 사항

▶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친환경 냉난방 공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음

- 친환경 제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탄소 배출이 절감되는 전력 효율성이 높은 공조기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공기조절기 관련 냉방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규격이 필요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함

- UL 규격은 미국 안전규격으로 강제 승인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임, 다만 일부 주에서 UL 규격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유엘 솔루션즈 (UL Solutions) 개요〉

■ (개요) 1894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 및 인증 회사 (본사 :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브룩)

■ (인증대상) 전기·전자제품, 건축재료, 해양장비, 신재생 에너지 부품 등

■ (인증효과) 유엘(UL) 규격은 미국에서 제품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시험(테스트)하고 미국 소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널리 사용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유엘(UL) 표준에 따라 시험(테스트)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함

▶ 미국의 환경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거의 모든 제품영역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시사점

▶ 선정품목의 한-미 FTA 특혜관세율 0%, MFN은 1.4%로 한-미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미국측 수입관세율 MFN 1.4%, FTA 특혜관세 0%로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4% 있는 품목임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그중에서도 공기 순환, 냉난방공조 시스템 등을 다루는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 세계 공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업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므로 환경관련 국제표준인 ISO 14001의 준수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임

23년 4분기

# 베트남 수출증가 품목

| 품명 | 진공펌프 |
|---|---|
| HS code | 8414.10 |

상대국 수입관세율 (%)

| MFN('24) | AK | VK | RCEP |
|---|---|---|---|
| 10 | 0 | 0 | 0 |

## 선정 사유

▶ 해당 품목의 對베 수출증감률은 18년부터 22년까지 등락을 반복한 후, 23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316.4%로 대폭 상승함

**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HS code 8414.10)**

(단위 : 천불, %)

| 연도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
| 2018 | 5,849 | -77.7 |
| 2019 | 3,248 | -44.5 |
| 2020 | 4,488 | 38.2 |
| 2021 | 2,211 | -50.7 |
| 2022 | 5,748 | 160.0 |
| 2022.12 | 5,748 | 160.0 |
| 2023.12 | 23,932 | 316.4 |

▶ 진공 펌프는 전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은 제조 및 가공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 해당 품목의 對한 수입이 증가하여 동 품목을 선정함

## 우리나라 對베 수출동향 (HS 8414)

▶ "진공펌프 (HS 8414.10)"의 對베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HS 8414.10-9020)"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HS code 8414.10 세부품목)**

(단위 : 천불, %)

| 구분 | HSK | 품목명 | 수출금액 | | |
|---|---|---|---|---|---|
| | | | 2021 | 2022 | 2023 |
| | | 총계 | 2,211 | 5,749 | 23,932 |
| 1 | 8414101000 | 항공기용 | 0 | 0 | 8 |
| 2 | 8414109010 |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44 | 140 | 78 |
| 3 | 841410902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15 | 2,091 | 18,526 |
| 4 | 8414109090 | 기타 | 2,152 | 3,518 | 5,320 |

##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 HS 8414.10(진공펌프) 對베 수출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FTA 활용률은 22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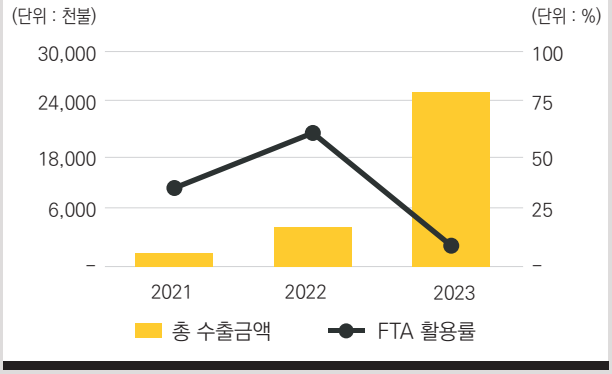
- FTA 활용률 21년 36.6%, 22년 61.4%, 23년 10.6%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TSH or RVC 40%임

▶ 23년 기준, HS 8414.10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87.4%, 중견기업 2.8%, 중소기업 9.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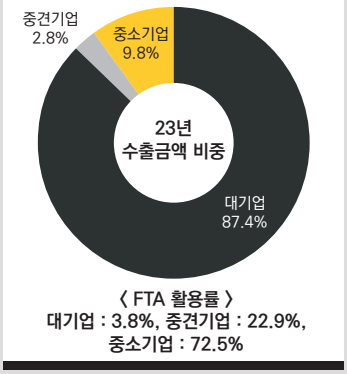
- FTA 활용률은 대기업 3.8%, 중견기업 22.9%, 중소기업 72.5% 임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HS 8414.10의 對베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 (2021~2023)**




**HS 8414.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3)**




〈 FTA 활용률 〉
대기업 : 3.8%, 중견기업 : 22.9%, 중소기업 : 72.5%

**베트남 수입 동향**

▶ 22년 기준 베트남의 HS 8414.10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54.7%)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17.7%), 일본(8.0%), 대만(5.6%), 독일(5.1%)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22년 기준 우리나라는 2위 수입국임

**특이 사항**

▶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 베트남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에는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및 반도체 제조회사들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선정품목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장비로 해당품목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진공펌프 제조에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며 기업들은 특허 기술을 통한 독점이 가능함

- 진공펌프의 개성화와 다양화가 지향되고 있는 오늘날, 국내 기업들은 품질, 성능 면에서 고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종합적인 경쟁력강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

**시사점**

▶ 선정품목의 한-베 FTA 특혜관세율 0%,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0%, RCEP 특혜관세율 0%, MFN은 10%로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0% 있는 품목임
-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인 대만(FTA 미체결)과 독일(EVFTA: 1.6%)보다 우리나라의 FTA 활용 혜택이 더 높음

▶ 새로운 제조업 허브 및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의 경우, 제조업에 사용되는 필수적 장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베트남 시장 확대가 필요한 시기임

23년 4분기

# 일본 수출증가 품목

| 품명 | 축제·오락용품 |
|---|---|

| HS code | 9505.90 |
|---|---|

**상대국 수입관세율 (%)**

| MFN('24) | RCEP(한-일) | | |
|---|---|---|---|
| | '23 | '24 | '25 |
| 3.2 | 2.6 | 2.3 | 2 |

**선정 사유**

▶ 해당 품목에 대한 對일 수출증감률은 19년부터 23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157.1%로 대폭 상승함

**한국의 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9505.90)**

(단위 : 천불, %)

| 연도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
| 2018 | 237 | -70.3 |
| 2019 | 1,293 | 446.1 |
| 2020 | 2,249 | 73.9 |
| 2021 | 3,279 | 45.8 |
| 2022 | 3,729 | 13.7 |
| 2022.12 | 3,729 | 13.7 |
| 2023.12 | 9,589 | 157.1 |

▶ 코로나로 축소, 중단된 축제·공연 등이 정상화되면서 관련 용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對한 수입이 급등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선정함

**우리나라 對일 수출동향 (HS 9505)**

▶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HS 9505)"의 對일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두 품목 모두(HS 9505.10-0000, 9505.90-0000) 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한국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9505 세부품목)**

(단위 : 천불, %)

| 구분 | HSK | 품목명 | 수출금액 | | |
|---|---|---|---|---|---|
| | | | 2021 | 2022 | 2023 |
| | | 총계 | 3,291 | 3,747 | 9,639 |
| 1 | 9505100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 12 | 18 | 50 |
| 4 | 9505900000 | 기타 | 3,279 | 3,729 | 9,589 |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 HS 9505.90(축제·오락용품) 對일 수출 금액 및 FTA 활용률은 22년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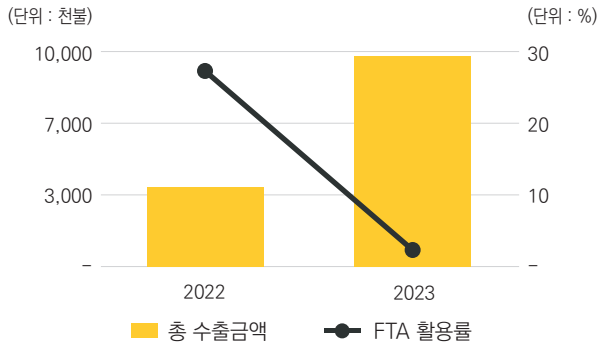
- FTA 활용률 22년 26.8%, 23년 2.6%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TH or RVC 40%임

▶ 23년 기준, HS 9505.90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0.5%, 중견기업 15.2%, 중소기업 84.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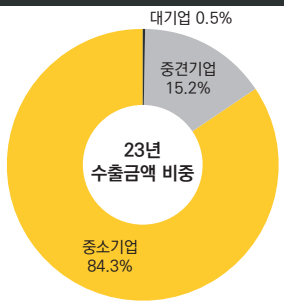
- FTA 활용률은 대기업·중견기업 0.0%, 중소기업 3.9% 임

##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HS 9505.90의 對일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 (2022~2023)**




**HS 9505.9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3)**




〈 FTA 활용률 〉
대기업·중견기업 : 0.0%,
중소기업 : 3.9%

## 일본 수입 동향

▶ 23년 기준 일본의 HS 9505.90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대만,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74.58%), 베트남(21.9%)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10위권 이내의 수입국인 미국, 대만, 영국, 멕시코 등의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미미함
- 선정품목의 일본의 對한 수입량은 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98%로 상승하였음

*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12위 수입국임

## 특이 사항

▶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 중단 되었던 축제와 공연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선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일본의 선정품목 총수입량은 코로나 19 이후 22년도부터 전년 대비 253.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고, 23년도에는 41.5% 수입금액이 증가함

▶ 대표적으로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이 재개되면서 응원봉을 비롯한 K-POP 굿즈 제품 수요가 급증함

- 특히 아이돌 연예인 관련 굿즈가 포함된 문구 및 완구는 2022년 대비 수출액이 135.3%나 늘어나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K-팬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팬들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콘서트(축제) 응원 도구 등의 굿즈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일본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증가세에 일본 각 지역에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축제·오락 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정 품목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시사점

▶ 선정품목의 RCEP(한-일) 특혜관세율 2.3%, MFN은 3.2%로 RCEP(한-일)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일본측 수입관세율 MFN 3.2%, RCEP 2.3%로 RCEP 활용 혜택이 0.9% 있는 품목임
- RCEP 특혜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으로 2032년 0%로 관세가 완전 철폐됨

**〈HS 9505.90 품목의 일본측 RCEP 양허스케쥴〉**

| 연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32년 |
|---|---|---|---|---|---|---|---|---|---|
| 특혜관세율(%) | 2.3 | 2 | 1.7 | 1.5 | 1.2 | 0.9 | 0.6 | 0.3 | 0 |

- 일본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RCEP 협정국(ASEAN,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간 적용되는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특혜관세율 적용시 유의가 필요함

▶ 선정품목은 일반수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판매경로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계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